

상, 하악 구치부 상실로 인한 비정상적인 수직, 수평 악간관계의 교합 재구성

서재승, 최대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병적인 마모(pathologic attrition), 교합 고경의 감소, 과도한 피개 교합 등의 주된 원인으로 구치부 상실이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실제로 구치부 상실로 인하여 구치부 지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저작기능의 감소로 인한 전치부로의 저작, 비정상적인 마모를 동반하여 비정상적인 악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며, 그 정도도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심한 경우 악구강 기능 및 심미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증례는 57세된 남자 환자로 상, 하악 양측 구치부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를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다. 상,하악 구치부가 상실된 상태를 방치하여 상악 전치부의 심한 교모와 상, 하악소구치부 기능교두의 심한 마모를 보이고 있었다. 상악 치열이 flaring된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마모로 인하여 우측 구치부의 교합 평면은 후하방으로 경사되어 있었다. 수직고경의 감소가 의심되었고, 부적절한 전방유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TMJ series상에서 좌측 과두는 습관적인 폐구 상태에서 전하방으로 이동하여 있었다.

수직, 수평 악간관계에 대한 검사후 적절한 악간 관계를 채득한 다음, 진단 wax-up을 시행하여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하였다. 수직고경은 소구치부에서 2mm정도 거상하였으며, 전치유도와 교합 평면을 재구성하여 1.5-2.0mm의 적절한 구치부 이개를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후 검사 기간 동안 수직고경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었고 환자는 심미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좌측 과두도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 하였다.

12주 관찰기간후 최종보철물 제작에 들어갔다. 최종 보철물의 형태는 surveyed crown 제작후 가철성 국소의치로 하였다. 전방유도는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후 검사기간을 가진 후 안정화된 상태의 수직 고경 상태에서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이용하여 최종 보철물에 재현하였고 적절한 구치이개를 부여하였다.

치료전 습관적인 상태, provisional restoration 제작시, provisional restoration 장착 12주후, 최종 보철물 장착후 각각의 전방유도 상태와 수직고경에 대해 비교 검사하였다. 향후 주기적인 recall 및 maintenance와 예후 관찰을 할 예정이다.